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23년 4월 일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3년 4월 일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난 4월 초순 영하권 기온으로 개화한 꽃눈이 고사하는 심각한 과수 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예년과 같은 착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과수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우리도의 경우 1,323농가, 641.5ha에 이르는 피해가 집계되었음. 생계 유지마저 걱정해야 하는 저온 피해 과수 농가에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피해 보상 등의 지원책이 절실하게 필요함

2. 주요내용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농약대, 대파대, 생제비)의 신속한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 제도 폐지 등 관련 정책이 피해 과수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함
- 매년 봄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 사업 예산 확대 등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

3. 참고사항

- 건의안 : 붙임
- 보낼곳 :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 대표

과수 저온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4월 7일과 8일, 영하권 기온으로 과수 꽃눈 고사 및 발작물 정식묘 냉해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 작물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과수 개화 시기가 빨라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에 의한 것으로 꽃눈이 까맣게 고사되어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수 저온 피해는 우리도를 비롯하여 강원·경기·경북·전북·전남·충남·세종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4월 27일 기준, 우리도의 과수 피해 상황을 보면 1,323농가, 641.5ha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는 생계유지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지원과 매년 반복되는 저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수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제비 등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복구비 지원을 통하여 자칫 과수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과수 경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수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2020년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개정으로 적과 전 저온 피해 보상률이 기존 80%에서 50%까지 하향되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보상률을 상향 조정하여 저온 피해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현실에 맞게 보장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 만큼 보험료 할증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 조사 시기도 과중에 따라 달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수 농가가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인 만큼 향후 재해보험정책 내용 조정 시 과수 농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자연재해는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2018년 이후 이상 저온으로 인한 과수 농가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과수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개량 등 선제적 조치가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저온 피해 예방 효과가 확인된 미세살수장치, 열방상판, 연소장치 등을 보급하는 사업들이 이제는 시범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온 피해 방지 장치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관련 사업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농가의 초기 설치비 부담을 경감

시켜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위기에 처한 과수 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지원을 통하여 과수 농가의 지속 가능한 과수 경영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냉해피해보험 보상을 상향 등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과수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저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